넘치게 받고서도 굳이 궁색을 떤다

(시편 67:1~7)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넘치게 받고서도 굳이 궁색을 떤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넘치게 받고서도 굳이 궁색을 떤다.'
'궁색을 떤다.'라는 말은 외모가 초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결핍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궁색을 떠는 상황이 있습니다.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은 재벌들이나 알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시원에서 살든 월세방에서 살든 넘치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맥락에서 선민이 누구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민들은 넘치게 주신 삶을 넘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넘치게 주신 삶을 항상 궁핍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넘치는 삶을 통해서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은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쁘기를 바란다면 설령 재벌일지라도 항상 궁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마음은 거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항상 구걸하고 뭔가를 더 얻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부자들이 바로 명품 걸친 거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은 잠깐 뿐입니다. 10억을 벌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은 10억 짜리로 수축되었다가 이내 본래 하나님의 크기로 이완됩니다. 10억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이제는 100억을 원하지만 결국 100억을 번다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잠깐의 만족을 느끼다가 다시 하나님 크기대로 이완되어 만족이 사라집니다. 만족을 위한 100억은 새 발의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은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하나님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게 주어진 상황들은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됩니다. 내가 아껴서 모아둔 월세 보증금조차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남아도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 몸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신 예수님은 몸조차도 남아돌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행동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채우자 몸은 만족과 기쁨을 위해 쓰일 곳이 없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몸으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도 없고 농사지을 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가진 모든 것을 넘쳐흐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넘쳐흐르는 것이 있을 때라야 전도는 이루어지고 넘쳐흐르는 부분으로만 이웃 사랑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몸까지도 넘쳐흐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몸 밖에 없는 노숙자에게도 넘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노숙자가 싱글벙글 만족하여 하나님을 전할 때에 재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올바르고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저자와 기록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막절이나 추수감사를 위한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감사를 위한 찬송에 '선교사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온 땅의 만백성에게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간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서 하늘 복의 기운이 주변으로 넘쳐흐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이방세계 주변으로 넘쳐흐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내용이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변사람들에게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리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까? 이방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직접 비춰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의 내용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당신을 나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선민에게 돈이 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까지는 모든 선민이 똑같지만 '돈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돈을 만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건강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건강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건강을 만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복이신 하나님을 가지게 됨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복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질 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의 도'라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에 부담부터 느끼기 쉽습니다만 본래 율법은 문자를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을 읽다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쓰인 대로 내 행동을 끼워 맞추는 용도가 아닙니다. 율법과 내 행동이 다르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음을 깨닫는 용도입니다.

'주의 구원'이란 곧 율법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마음 채움을 입은 자는 자연히 주의 도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방인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차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에 맞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는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넘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행동은 율법대로 나타납니다. 율법을 문자로 본다면 결코 지켜질 질 수 없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려고 할 때에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의 행동은 주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순간순간 취해야 될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돈을 벌거나 승진하여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록 노숙자로 살더라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넘치면 가지고 있는 몸조차도 남아도는 것으로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몸을 붙잡고 몸이 만나는 대상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넘치면 만족과 기쁨을 위해 몸은 전혀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이 넘치는 부분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타인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노숙자는 자기 몸 하나를 이웃을 위해 쓰려고 하지만, 10조원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월세방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라도 재산을 더 불리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하나님의 넘쳐나심이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진 채무자이자 신용불량자라면 나에게도 넘침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빚으로 인해 도망중인 상황에서 우연히 어느 시골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통해 빚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빚지고 도망가는 상황이 해결이 되든 말든 이제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빚진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이 상황 자체는 남아도는 것이 되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뜻이 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생기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0원이라도 더 얻어낼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빨대 꽂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빚진 상황 자체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이 유지되든 없어지든 상관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웃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강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시를 추수감사절에 부르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번역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성경마다 애를 쓴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보다 비유적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곳간에 곡식을 쌓는 모습을 비유로 삼은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해서 배불리 먹고 곳간을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갖도록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7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월세방에 살든 번듯한 집이든 고시원이든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있다면 몸에 관한 모든 것이 남아도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몸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주로 오복(五福)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장수 재물 건강 벼슬 자녀들의 형통입니다. 이러한 틀에 갇혀있으면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부자가 된 사람이 간증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가난한 상태였다면 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 마지막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전하면 오히려 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돈에 대한 사랑을 부활시키는 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건강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건강과 돈을 전도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희망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그것들과 더욱 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간다면 이 상황이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길바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서 혹은 빚을 못 갚아 감옥에 간 사람에게 가서 그 상황이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더 벌고 모으라는 권고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감옥이든 길바닥이든 재벌이든 그것이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상황이 바로 선민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공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똑같이 남아돈다고 해도 재벌에는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는 푼돈 얼마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내가 비록 고시원에 살면서 재벌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았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공평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의 특징입니다. 재벌에게는 많은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고시원에 사는 자만큼의 경제력도 없으셨고 단지 몸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는 몸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시자 그 몸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도는 부분의 양에는 불공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권좌에 있었음에도 골리앗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치는 부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벌려 하지 말고 더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력이나 스펙을 더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두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남아돈다고 느껴지도록 마음을 우선 하나님을 채워야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끊임없는 만족을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상태가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정도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죽은 자로 인정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죽은 자로 인정함이 굳세면 굳셀수록 십자가에 있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등지고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로 온전한 만족을 이룸으로서 이 땅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넘침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